

[나의 초보 양육기 1]

“연약한 나를 도구 삼으신 주님”

신용애 자매 / 2002 / 페이지 수: 2

일대일 동반자과정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자반을 수료하게 되었지만 저는 점점 더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복음의 바른 통로로 설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즈음 일대일 양육자 스쿨이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길 원했습니다.

스쿨 강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양육을 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과 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자 스쿨에 등록하면서 양육을 신청했던 저는 세 번째 강의가 끝날 무렵 동반자와 연결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육자 스쿨을 다 마치고 충분히 용기를 얻은 뒤에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겐 너무 과분한 동반자

그때 문득 하나님은 저에게 온누리 교회로 처음 와서 일대일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반자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동반자는 신앙생활이 10년이나 된데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자매였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상 상황에 부딪히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또 다시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만남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걱정하고 있을 때 남편이 문자 메시지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13절)

남편의 기도와 격려에 용기를 얻은 저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동반자를 만나 제1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는데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자매의 마음에 이미 문을 여시고 깊이 관여해 주셨습니다. 1과를 마치는 시간 내내 자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첫 만남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첫 만남은 내내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동반자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 자매 또한 양육자로서 당당히 설 것을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자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캠퍼스라는 좋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작지만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일대일 양육자 스쿨의 스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도성 장로님의 '제자양육2'의 공식을 떠올리며 앞으로 10년 후 캠퍼스에 펼쳐질 주님의 나라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을 나름대로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며 강한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은 슈퍼(super) 양이 되겠습니다.

*** 출처 : 큐티와 일대일**